



한국청소년대표팀 최준이 12일 오전 3시30분(한국시간) 폴란드 루블린의 루블린 스타디움에서 열린 에콰도르와의 2019 U-20 폴란드월드컵 준결승전에서 전반 39분 선취골을 넣고 기뻐하고 있다.

뉴스

## “아우들이 일냈다”...내친김에 U-20 월드컵 우승 가자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FIFA) 20세이하(U-20) 월드컵에서 사상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하는 새 역사를 썼다.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FIFA 주관대회에서 결승에 진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이 12일 오전 3시 30분(한국시간) 폴란드 루블린의 루블린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에콰도르와의 2019 U-20 폴란드월드컵 준결승전에서 최준(연세대)의 결승골을 잘 지켜 1-0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한국은 선배들이 1983년 멕시코대회에서 4강에 올랐던 것을 뛰어넘어 사상 최초로 결승에 올랐다.

태극전사들은 한국시간 16일 오전 1시 우치의 우치경기장에서 이탈리아를 1-0으로 제압한 우크라이나와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놓고 마지막

최준 결승골...에콰도르 1-0 제압 정정용 “우크라이나도 넘겠다”

승부를 펼친다.

박종환 감독이 이끌었던 1983 U-20 멕시코 대회와 2002 한일월드컵에서 성인대표팀이 4강에 진출한 게 종전 최고 성적을 갈아치운 이정표를 새로 세웠다.

여자 축구는 FIFA 주관 국가대항전에서 우승한 적이 있다. 2010 U-17 여자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같은 해 U-20 여자월드컵에서는 3위에 진출했다.

또 아시아 국가로는 카타르, 일본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U-20 월드컵 결승 무대를 밟게 됐다. 카타르는 1981 호주대회, 일본은 1999 나이

지리아대회에서 결승에 올랐다. 모두 준우승에 만족했다. 결승에서 카타르는 서독에 0-4, 일본은 스페인에 0-4로 패했다.

세네갈과의 8강전에서 1골 2도움으로 펄펄 날았던 이강인(발렌시아)은 결승골을 도우며 활약을 이었다. 이번 대회 4번째 도움이다. 1골 4도움을 기록 중이다.

수비수 최준은 한 차례 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침착하게 결승골로 연결했다.

에콰도르는 FIFA 랭킹 59위로 한국(37위)보다 아래에 있다. B조 3위로 어렵게 16강 토너먼트에 진출했지만 우루과이(16강), 미국(8강)을 연파하며 상승 곡선을 그렸다.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였다. 더욱이 한국은 9일 세네갈과의 8강전에서 연장, 승부차기까지 치르며 무려 120분을 소화했다. 체력 부담이 적

지 않았다.

에콰도르가 볼 점유율에서 근소하게 앞서 나갔다. 한국에 운이 따랐다. 에콰도르는 전반 38분 역습에서 캄파나가 골포스트를 때리는 한 템포 빠른 중거리슛으로 한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그러나 위기 뒤 찬스였다. 한국은 전반 39분 프리킥 기회에서 이강인이 에콰도르 수비의 빈틈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패스했다. 수비가 자리를 정돈하기 전에 빠른 땅볼 패스를 찔러줬고, 최준이 정확한 오른발슛으로 에콰도르의 골네트를 갈랐다. 한국이 1-0으로 앞서며 전반을 마쳤다.

정정용 감독은 후반 시작과 함께 에콰도르가 강한 압박을 펼치자 8분 김세운(대전)을 빼고 조영욱(서울)을 투입해 변화를 꾀했다. 조영욱의 활동력을 바탕으로 에콰도르를 흔들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강인은 후반 15분 프리킥 세트피스에서도 날카로운 크로스로 에콰도르를 위협했다.

후반 17분에도 고재현(대구)이 역습 기회에서 중거리슛을 때렸지만 골문을 살짝 외면했다. 이강인이 탁월한 개인기를 선보이며 역습을 전개했다.

수비는 에콰도르의 끊임없는 공격을 뚫을 수 없었으며 막았다. 간간이 역습을 노렸다. 후반 41분 임원상(광주)이 역습을 잘 살려 추가골을 터뜨렸지만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아 노골이 됐다.

에콰도르도 후반 추가시간에 한국의 골망을 흔들었지만 비디오판독(VAR)을 통해 오프사이드 선언을 받았다.

골키퍼 이광연(강원)은 마지막 순간 결정적인 슛을 선방하며 승리를 지켜 새 역사를 일궈냈다.

뉴스

## ‘벤투호 황태자’ 황의조, 혼자 날았다

A매치 대표팀, 이란전 1-1 무승부

한국 축구가 8년5개월 만에 이란전 승리를 노렸지만 아쉽게 비기면서 연속 무승이 6경기로 늘어났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11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이란과의 A매치 평가전에서 황의조(삼보 오사카)의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1-1로 비겼다.

지난 7일 호주를 1-0으로 꺾은 벤투호는 앞서 3월 불가리아, 콜롬비아까지 포함해 A매치 3연승을 달리고 있었지만 천적 이란을 꺾지 못했다.

한국은 2011년 1월22일 아시안컵 8강전(1-0) 승리 이후 이란을 이기지 못했다. 이날까지 6경기에서 2무4패를 기록 중이다. 역대 상대전적은 9승9무13패가 됐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1위로 아시아축구연맹(AFC) 가맹국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자랑하는 이란은 최근 마크 빌모츠 감독이 새롭게 부임했다. 전임 카를로스 케이로스 감독은 콜롬비아 사령탑을 맡았다.

빌모츠 감독은 앞서 강조한대로 지는 경기를 하지 않았다.

벤투호의 공격수 황의조는 호주전에 이어 2경기 연속으로 골맛을 보며 간판 공격수임을 입증했다. A매치 27번째 경기에서 나온 8번째 골이다.

벤투 감독은 황의조와 손흥민을 전방에 썼고, 나상호(FC도쿄), 황인범(벤투버), 이재성(휴스턴 키)에게 2선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11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팀 A매치 평가전 한국 대 이란의 경기, 황의조가 선취골을 넣고 있다.

뉴스

백승호는 미드필드와 수비라인 사이에서 연결고리를 맡았다. 수비에서는 호주전 3백과 달리 다시 4백 카드를 떠났다. 왼쪽부터 홍철(수원), 김영권(삼보 오사카), 김민재(베이징 귀안), 이웅(전북)이 썼다. 조현우(대구)가 골문을 지켰다.

한국이 초반부터 높은 점유율로 주도권을 잡았다. 그 결과 첫 골을 성공시키며 승부의 균형을 잡았다.

황의조는 후반 12분 득점포를 가동했다. 이란

수비수 2명이 공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서로 뒤엉켜 넘어진 찬스를 놓치지 않았다. 흘러나온 볼을 잡은 황의조는 골문으로 끌고 갔다. 골키퍼가 각도를 좁히고 나오자 집솟으로 키를 넘겼다. 2011년 1월22일 나온 윤빛가람의 골 이후, 8년5개월 만에 이란전에서 터진 골이다.

그러나 오래 웃지 못했다. 이란이 후반 17분 코너킥 세트피스에서 만회골을 터뜨린 것이다. 한국의 실점은 마지막에 김영권을 터치해 그의 자책골로 기록됐다.

뉴스

## 차명진, 더 강해져서 돌아온다

2승 달성 후 회복 위해 엔트리 말소 “투구 메커니즘 보완에 고민 중”



“부족한 점 보완해서 돌아올게요.” ‘아기호랑이’ 차명진(24·KIA 타이거즈)이 더 강해져서 돌아올 수 있을까.

차명진은 지난 11일을 끝으로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한 단계 더 성장한 모습을 위해서다. 10일 정도 휴식 겸 재정비 시간을 갖고 다시 1군에 복귀할 예정이다.

박 감독대행은 “차명진의 말소는 호투 여부와 상관없이 정해진 것이다. 부상이력이 많았던 탓에 보호 해주려는 취지다”며 설명했다.

경기 전 엔트리 말소가 예고된 상황이라 의기소침할 수도 있었지만 차명진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왜 5선발급인지 증명하듯 공을 던졌다. 삼성의 타선을 제압하는데 성공했고 승리투수에 이름을 올렸다. 기록은 5이닝 4볼넷 2탈삼진 1실점 1자책점이다. 이로써 차명진은 시즌 2승째를 달성하게 됐다.

경기 후 차명진은 “오늘은 타자들이 많이 도와줘서 이기지 않았나 싶어요”면서 “2군에서 좀 더 부족한 점을 채우고 돌아오겠습니다”고 다짐했다.

차명진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두 가지로 좁혀진다. 바로 제구력과 이닝소화능력이다.

먼저 제구력 문제는 이날 경기에서도 드러났다. 삼진 수보다 볼넷이 많았던 것이다. 이 탓에 쉽게 풀이갈 경기도 여러 차례 위기에 몰리는 장면이 나왔다.



차명진은 “볼넷이 많았다는 점이 아쉬웠다”며 “의미 없는 공을 많이 던지면 나도 힘들지만 야수들도 수비하느라 힘들었을 것이다. 그저 볼넷보다는 차라리 맞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구력을 높이기 위해 그는 투구 폼 수정도 고려하고 있다. 특

히 공을 던질 때 팔이 내려오는 각도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차명진은 “투구 메커니즘은 조금 고쳐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이 고쳐야 한다. 제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순간은 팔이 떨어질 때다. 때문에 팔이 내려오는 점 등을 보완할 생각이다”고 전했다.

사실 그의 고민은 예전부터 있었다. 6차례 등판할 동안 프로무대의 높은 벽을 느꼈던 것이다. 이를 두고 그는 “앞으로 야구를 계속 고쳐야 할 점이다. 매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차명진은 긴 이닝을 버텨내야 하는 숙제도 있다. 선발로 전환한 뒤 치른 4경기 동안 그는 5이닝을 소화한 경기는 2경기다. KT전에서는 4.1이닝(3실점 3자책점)을, 두산전에서는 4이닝(3실점 2자책점)을 던졌다. 긴 이닝을 버텨주는 능력이 선발 조건을 하나인 만큼 이 과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한경우44@kkt2@srb.co.kr](mailto:한경우44@kkt2@srb.co.kr)